



### 나의 수행법

김오복 (下)



사불수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나는 '버스를 탈 때도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을 보면 저분들이 다 음 생애는 복이 많고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며 나도 모르게 발원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불수행이 내 본래 면목을 찾는 '첫걸음'이란 것을 깨닫게 됐다.

사불수행은 이렇듯 괴로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것의 원인을 관찰해내게 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길을 내게 제시했다. 사불수행이 나를 그렇게 만든 셈이다. 부처님이 좋아서 부처님을 그리겠다는 일념하루로 시작한 일이다. 이제는 내 수행의 전부가 돼버린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을 그리다 보면,

을 감아도 천장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관세음보살의 영락이 땀들었다. 아침에 관세음보살로 시작을 해서 잠을 잘 때까지 보살님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드는 것은 마음자리에 맡기고, 열심히 마음의 수행을 쌓아갔다. 그러니 내 마음자리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다. 두통으로 시달렸던 병도 어느 날부터인지 치유가 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다.

그렇게 불보살님 한 분 한 분의 그림을 완성하면서 난 늘 가슴이 벅차고 기뻛다.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중



<염송>의 핵심은 '바늘 끝으로 번뇌의 숲통에 꽂는 촌철살인(寸鐵殺人)과 같이 맥을 꼭 찌르는데 있다'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

▲'염송(拈頌)'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염송은 어떤 한 상황을 놓고 역대조사들이 깨달음의 경계를 내보이는 방식이다. 가령 '부처님이 길가의 시체를 보고 우셨다'고 할 때, 그 상황을 놓고 후인들이 선가적인 입장에서 시나 계승 등으로 읊은 것을 염송이란 한다. 여기서 염(拈)은 '어떤 상황을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요즘 말로 '픽업(pick up)'이란 말이다. 송(頌)은 어떤 한 사건을 올려놓고 여기에 대한 소감을 읊은 것이다. 이를 합쳐 염송이라 한다.

▲<선문염송·염송설화>가 초심자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과 교, 현교와 밀교는 물론, 심지어 物(물)에 초연(超然)하라는 노장사상, 수당대에 발전된 시기도 담겨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선문염송>은 교화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불교사상을 언제 어떻게 기록·기억하며 형식을 취하겠는가'하는 반성 끝에 만들어졌다. 즉 '한 생각이 딱 깨지는 법은 없는가'하는 공부법으로 채택한 선(禪)을, 쉽게 설명한 것이 <선문염송>이다. 지엽적인 것을 추려내고 핵심만 모아 선을 풀이한 것이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는 무엇인지요?  
-가령 불을 쓴다고 하자. 불은 필요한 만큼 쓰고 해가 되는 쪽으로 쓰면 안 된다. <선문염송·염송설화>의 핵심은 이런 '불조심'을 체질화·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스스로 체험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수행자가 그런 과정을 통해 화두로써 수행의 목표지로 삼으라는 것이다. <선문염송>의 핵심키워드는 바로 '성성착(惺惺着)'이다.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는 뜻이 이 책의 핵심키워드다. 이 말은 상황에 맞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려준다.

▲<선문염송·염송설화>중, 한 책을 통해 핵심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칙(則)은 부처님의 생애, 불멸 후 조사들이 수행하면서 한 대화, 후대에 와서 선방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교훈이 될 만한 상황을 공안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1463칙 중, 제2칙 염송취행 '주행(周行)'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다. 이 자체가 적이자 화두다. 그걸 불

### 불보살의 기운 내 몸으로 전해져 평온 나도 모르는 사이 번뇌놓고 마음 관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기도 모른다.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내가 원하는 불보살님을 관하고, 그 불보살님의 기운이 내 몸속으로 전해지는 것을 체험하면 피로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또 일을 하다가 잠깐 호흡만 멈춰두 몸속에서는 벌써 반응이 생겨 여의주의 불꽃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사불수행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관하게 만들었고. 지난날에는 관을 해도 잠만 오고 번뇌만 쌓였는데, 지금은 감이 확실해 온다. '당신이 부처님을 그리라고 시켜놓고서 몸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병을 만드는 것도 당신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당신이냐' 해 결해달라'고 발원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난 모든 일은 마음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의 관세음보살을 그리며 평온

안 짜증내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던 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난 번뇌 망상을 소멸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늘 곁에서 지켜봐주시던 남편과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왜준 3형제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나를 지도해주시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난 '제가 그린 부처님 상호를 죄지는 사람이 보면 죄의식을 느껴서 참회하게 해주시고 미소 짓는 입을 보면서 자비를 느끼게 해주소서'라고 발원했다. 그리고 난 모든 수행단계를 자신들의 근기에 맞는 기도 방법만 달랐지, 결국에는 마음자리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게 됐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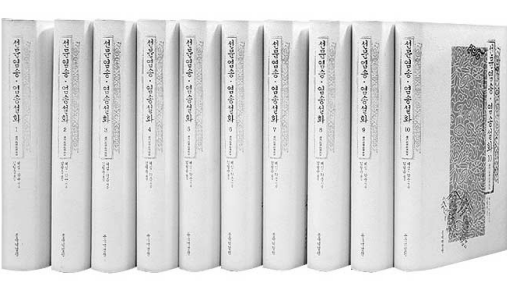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불수행은 답답하면 마음이 청량한 음료수의 맛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 사불수행에서 얻은 환희심을 이 글을 통해 여러 불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 (끝) ■주부

### “‘염송’ 읽고나면 가차없이 불살라 버려라”

■ 8년만에 '선문염송·염송설화' 10권 완역한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8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선문염송·염송설화(拈頌·拈頌設話)를 총 10권으로 완역한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상세한 공안해설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선문염송>을 수행의 한방편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어만 수행자가 대본심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고, 문자선(文字禪)과 해오선(解悟禪)의 선병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극단적으로 "읽고나면 가차없이 불살라버려라"고 강조했다.

그럼 스님은 왜 원고지 40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선문염송>을 번역했을까? 선가의 필독서로 수많은 남자들의 눈을 밝혀 온 <선문염송>, 핵심내용과 마음공부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월운 스님에게 들어봤다.



월운 스님이 8년간 원고지 4만매 분량으로 완역한 <선문염송·염송설화> 총 10권.

### 상세한 공안해설 오히려 수행에 방해 모른다고 포기말고 꾸준히 공부해야

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광야에 등불이 나타났구나' 하고 시를 읊었고, 어떤 사람은 '웃긴다. 그때 내가 부처님을 봤으면, 때려 잡아 개에게 실컷 먹게 했을 걸' 하고 계승을 읊기도 한다. 전자는 현심론에, 후자는 본질론에 입각한 입장이다.

후자는 '쇠가모니가 태어났든 상관없이 본래 모두가 부처라는 진리가 그대로인데, 왜 요란스럽게 하는가' 라는 입장이다. 즉 '중생들이 보이는 부처에게 매달리게 해, 도리어 본래 자신이 부처임을 못 보게 하니, 때려 죽여 차라리 천하를 대평하게 했어야 했다'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 책은 부처이전의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문염송>은 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선의 개념으로서의 <선문염송·염송설화>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불 질러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존 공안 해설에만 집착을 한다. 때문에 읽고나면 가차없이 불살라버려야 한다. 염송은 선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써 이해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는 법을 안다고 해도 돈을 직접 벌어야 한다.

또 공안의 상세한 설명은 대본심(大根本心)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대본심은 마치 높은 산에 오를 체질이나 훈련이 쌓여졌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산에 오를 자질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상세한 공안 해설은 독약이 되므로 하고, 자질이 되는 사람에게 높은 산을 올라가게 하는 지도가 된다. 산 밑에서 오르지 못하고 빙빙 돌기만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고쳐줘야 한다.

▲<선문염송·염송설화>로 마음공부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책만 보고 선을 이해하면 안 된다. 무의미한 것은 것과 같다. 또 선수행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선문염송>을 보지 않고, '혼자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면 안 된다. 보물을 퇴비장에 묻어놓고 안 찾는 것과 같다. 특히 좀 앞서 간다고 지적 받은 사람은 겸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자기 공부에 융합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융합심을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을 한 권씩 읽어 나가면서, 수행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치우쳤구나', '내가 너무 풀어놓고 살았구나' 하고 자신을 늘 반성해야 한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선어록 공부로 인해 선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  
-선문의 틀에는 두 가지 있다. 어록과 염송이다. 어록은 조사들이 법문을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 사람의 사상이 현실을 부정하는지 인정하는지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반면 염송은 어록의 복잡한 형태를 거부한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몽둥이로 때리고 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늘 끝으로 숲통에 꽂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다. 맥을 꼭 찌르면 된다는 뜻이다.

▲간경수행 차원에서 <선문염송·염송설화> 읽기는 가능한지요?  
-간경은 경전의 소중한 가치에 호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무량공덕이 된다. 그럼 <선문염송>을 읽으면 공덕이 될까? 그렇지 않다. 한 구절 알고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버려두거나, 또 조금 내용이 눈에 보인다고 까불면 안 된다. 내용을 모르면 '그 말에 뜻이 있을 텐데' 하고 자꾸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야 공덕이 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 '선문염송·염송설화'는 어떤 책?

간단히 말하면, <선문염송>은 '화두 종합교과서'고, <염송설화>는 <염송>의 참고서다.

<선문염송>은 고려시대 진각국사 해심(1178-1234) 스님이 선가의 여러 선사들의 어록 등을 일일이 열람해 편찬한 것으로, 선가의 1463 고칙(古則)과 이에 대한 선지식들의 징(徵)·화(化)·두(頭)에 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 문답하는 형식)·염(拈)·한(汗)·사(事)·예로 화두의 제시와 풀이)·대(代)·화(化)·두(頭)·속에서 답을 못하는 자를 대신해 한 마디 하는 것)·별(別)·화(化)·두(頭)·속에서 문답의 주인을 달리해 대답)·송(頌)·화(化)·두(頭)·속의 사건을 시로 낭송)·가(歌)·송(頌)·이(記)·등을 선별해 집대성한 책이다. 또 <염송설화>는 해심 스님의 제자 각운 스님이 <선문염송> 각각의 옛 화두에 대한 배경, 용어 설명, 일화 등 상세한 주석을 붙여 30권 5책으로 펴낸 책이다.

##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불교계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최초로 출가도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 및 특강반을 개설하고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내용	강의 내용	강의일자	지도교수	
출가자(행자) 교육과정	출가도도를 희망하는분들 대상으로 기본교육 의식 습의 불공등을 집중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립니다	목, 금	본교 교수진	
경전연구과정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선어록 등 대승경전등을 권위있는 교수님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함	금	신규탁 연세대학교수	
의식교육과정	기본반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조성 각단예불 불공 시식 축원등 초심자도 여법히 의식을 집전할수 있도록 함	목, 금	능해스님
	전문반	각단불공 시권 대령 관록 시식 사십구재 천도제의식과 바라무 내비무등의 적법의식을 집중강의함	목	능해스님
특강과정	연구반	상주권공을 중심으로 천도재 방생 점안등 전문적인 의식을 위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함	수	경허스님
	작법반	불교의식중 비라중 나비중등 의식무를 배우고자 하는분들을 대상으로 집중강의		도명정안스님
	호적반	불교의식 각종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분들 지도함	화	대해스님
생활역량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립니다	목	지홍스님
	생 활역량반	이서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전문적인 인생커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립니다	금	대각스님

2 장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주차장 안비)

3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 각반 30명 이내, 선착순 접수함

4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사무처 - 전화 02)763-5213, 팩스 02)747-9290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가 내 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기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연법사

\* 이 책은 영기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기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기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가 내 용

- 1 영기천도의 의미와 영기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기들의 영향력!
- 3 영기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 하는가?
- 4 태어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기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족, 연속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기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기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